

HOME > 서울자치구 > 종로구

종로구, '치매 감별검사·주치의' 본격 추진... 서울적십자병원과 협약

윤종철 기자 | 승인 2025.05.02 10:09



서울적십자병원 목성균 관리부원장(왼쪽), 종로구치매안심센터 박지은 센터장

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= 종로구(구청장 정문헌)가 지난달 30일 종로구치매안심센터에서 서울적십자병원과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.

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 내 통합적인 치매 예방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, 치매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중증화 방지를 위해 함께하기로 약속했다.

특히 구는 이번 협약으로 '치매 감별검사'와 '치매 안심 주치의'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

치매 감별검사 사업은 치매 환자 및 치매 의심자를 조기에 발굴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
치매 안심 주치의 사업은 조기 발견과 진단에 중점을 두고 환자의 중증화 방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.

양 기관은 이외에도 의료·복지 서비스 연계, 치매 환자 모니터링, 지역 보건사업 증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.

구 관계자는 “지역사회 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, 치매 예방과 관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”고 말했다.

저작권자 © 한강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윤종철 기자 기자